

## 바른 종교, 옳은 신앙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 회장)

바른 종교란 올바른 신관(神觀)을 깨달음이다. 옳은 신앙은 자율적인 신앙생활이다. 올바른 신관을 깨달음은 거짓 나인 제나(ego, 自我)를 꺾고(否定) 한얼님이 주시는 열로 일어나신 한얼님이 참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자율적인 신앙이란 한얼님께서 보내신 열나의 뜻을 받들어 좇는 것이다. 이것이 생사(生死)에 묶여 있는 제나(自我)를 초월하여 참나인 열나를 자각함이요 실현(實現)함이다.

그러나 이 땅 구슬(지구) 위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낳아 준 거짓 나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나는 26세 때 서울 YMCA 연경반 금요강좌 모임에서 강사 류영모로부터 이 말을 처음 듣고 20여 년 동안 나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였다. 성경에 예수가 한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른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수는 한얼님을 아

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류영모의 주장은 예수, 석가와 우리가 신분의 차원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다.

“땅의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참나가 아니다. 가짜 나인 거짓 생명이다. 우리는 참나(열나)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이 참나(열나)를 찾는 것이다. 한얼 나라에는 참나(열나)가 들어간다. 가짜 생명인 제나(自我)에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 가짜 생명은 죽어야 참나(열나)가 깨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짜 생명을 연명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안된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인 열 생명에 들어가면 숨 쉬지 않아도 끊이지 않는 열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구저찌구 하는 제나(ego)는 소용이 없다. 석가의 열(Dharma), 예수의 열(Πνευμα)은 같은

한얼님(날바나님) 아들이다. 숨 안 쉬면 끊기는 이 목숨은 가짜 생명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는 인류 역사에서 제나로 죽고 영원한 생명인 열나로 솟난(거듭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예수, 석가를 말하였다.

“우리가 좀 더 길게, 넓게 살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열 생명으로 말이지, 몸 생명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예수, 석가는 정신적인 열 생명으로 영생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들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 석가는 바른 소리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누구를 존경하며 좇는 것은 다 제 욕심을 채우려 드니까 모르게 되는 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가 바른 말이라고 한 예수, 석가의 말씀은 이것이다.

“한얼님이 주신 열나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땅에 어머니가 낳은 몸나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열나에서 나오는 것이다.(요한 6:63) 잘 들어라, 한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열로 솟나지 못하면 아무도 한얼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것은 몸나이고 일어나신 한얼님이 주신 생명은 열나이다. 한얼님이 주시는 열나로 솟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요한 3:3~7, 박영호 의역)

석가가 열나를 깨닫고 한 첫 말씀을 한문으로 사성제(四聖諦)라 하는데 그 뜻은 위에 쓴 예수의 말씀과 일치한다. 교의(敎義, Dogma)만 외우지 않고 생각할 줄 아는 송상호 목사가 들을만한 소리를 하였다.

“이제 이 지구위성에 필요한 종교는 명확해졌다. 근본과 연결해주는 세상이 둘이 아님을 역설하는 종교, 세상과 세상을 소통시켜 주는 종교, 우주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종교인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주적인 종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송상호, 『모든 종교는 구라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까지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못되는데 미래의 종교는 반드시 우주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 종교 가운데도 우주적인 종교가 있었다. 예수의 종교, 석가의 종교도 분명히 우주적인 종교이다. 예수가 말한 한얼님 아버지는 우주정신인 한얼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요한 10:29)라고 하였다. 만유보다 큰 것은 우주밖에 없다. 예수의 아버지는 우주이며 우주의 임자인 우주정신인 한얼님이시었다. 석가는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니르바나(Nirvana)라 하였다. 한문으로 의역한 것이 적멸(寂滅)이고 음역한 것이 열반(涅槃)이다. 적멸은 침묵이란 뜻이다. 파스칼과 소로우는 한얼님을 침묵이라고 하였다. 우주정신을 한얼님이라고 한 타고르와 토인비의 글을 인용한다.

“우파니샤드를 보면 우주적 정신 곧, 한얼님

정신에 이르는 길은 한얼님이 내게 보내시는 열나를 아는데 있다고 하였다. 제나[ego]를 멀리하고 열나를 아는 것이 참나를 찾는 첫걸음이다. 나의 본성(本性)이 열나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제나[ego]를 꺾는데 성공할 때만 이룰 수 있다. 온갖 교만과 탐욕과 공포를 초월하여 세속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죽음이 진리인 참나[열나]로부터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과 열이 진선미(眞善美) 함을 알 때 이룰 수 있다”

(타고르, 『삶의 실현』)

“종교 자체는 그 역사적인 외형(外形)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성에 본래 갖춰진 능력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종교는 우주의 궁극의 정신적인 원리에 대한 탐구이다.”

(토인비, 『토인비 회고록』)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한얼님 아닌 것을 한얼님으로 받드는 물신(物神), 인신(人神), 귀신(鬼神) 등의 우상숭배를 버리게 된다. 예수, 석가에게 절을 해도 스승님으로 하는 것과 신앙의 대상인 절대자(한얼님)로 절을 하는 것은 사뭇 다르다. 신앙의 대상으로 절을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가 된다.

우주정신의 한얼님을 섬겨도 138억 년 전에 있었던 빅뱅(Big Bang) 이후의 별나라 우주와 빅뱅 이전의 허공의 무한우주와는 또 다르다. 성운(星雲)의 별나라 우주는 일종의 유한(有限)우주이다. 직경이 80억 광년이나 되는 유한우주이다. 이 유한우주는 가장자리 없는 절대 허공에 안겨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 가장자리 없는 절대 허공을 류영모는 본무(本無)라고 한다.

“본래 없는 본무(本無) 이것을 참 있다고 할 것이다. 본래 없는 것만이 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래 없는 것이야말로 바로 없이 계시는 한얼님이시다. 우리가 없어진다면 아주 실패하고 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여기서는 본래 없는 곳으로 가자는 것이다. 본무(本無)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속 알(德)을 높이는 것이다. 속 알을 높이는(崇德) 것이 참된 삶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絕對)는 허공(虛空)이다. 색계(色界)는 물질계이다. 무한 우주의 영원 무한한 단일허공을 확실히 느끼는데 한얼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느껴진다. 참이라는 것은 상대 세계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 빈탕한 데[허공]에 들어가야만 참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거짓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공(絕對空)을 지성으로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음으로 참이 될 수 있다. 허공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얼님은 겉으로는 무한한 허공이요, 속으로는 충만한 열성령이시니 없이 계시는 한얼님이시다.

사람은 왜 한얼님을 알려고 하는가?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알 때 한얼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사람 노릇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하려는 이는 마땅히 한얼님을 알아야 한다. 한얼님을 알아 삶의 뜻을 알았으면 아무 때 죽어도 좋다. 인생의 의미란 내가 열나로는 한얼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열나로 한얼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면 제 내몸나는 아무 때나 죽어도 좋다. 내 맘속에는 벌써 영원한 생명인 열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

얼님 아들인 열나는 생사(生死)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열 생명을 가졌기에 이 겹질의 몸나는 아무 때 죽어도 좋은 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몸이 죽지 않고 사는 신선이 된다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니, 몸의 의식이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윤회한다니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 같은 거짓말이다. 종교를 한 사람이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다. 종교에서 열나[한얼님]가 참나임을 깨달았으면 열나의 뜻을 받들어 좇는 것이 신앙이다. 열나의 뜻을 받드는 과정이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자율(自律)에 있는데 그 자율은 기도에서 결정이 된다. 류영모는 말하였다.

“기도는 혼자서 해야 한다. 제 기도는 제가 해야 한다. 여럿이 모여 할 때는 암만해도 하는 척하게 된다.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미워해야 한다.”

(류영모, 『다석어록』)

석가, 예수도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는 말하기를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는 머리 돌 곳도 없었다. 혼자 있을 골방도 없어 산속으로 혼자 기도하러 갔다. 석가는 기원정사나 죽림정사 같은 큰 집이 있었으나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홀로 묵상을 하였다. 예수도 석가도 제자들과 함께 예배 의식을 한 적이 없었다. 예수도 석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제(司祭)가 아니었다.

예수가 기독교를 만든 일이 없듯이 석가도 불교를 세운 일이 없었다. 모두 예수, 석가를 따르겠다는 뒤에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다.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지성껏 살면 무상(無常)한 몸 생명이 비상(非常)한 열 생명이 된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내버리면 인생은 허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쉬면서 쉬지 않는 숨처럼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은 늘 제나[自我, ego]를 꺾음으로써 열나가 산다. 사람은 내 맘에 오신 한얼님이신 열나를 위하여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한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자기의 사명(使命)으로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내 맘속에 열나가 한얼님과 하나 되게 중심을 잡고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하여 삶은 언제나 옛것을 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옛 겹질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사는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높게 살아가야 한다.”

(류영모, 『다석어록』)

이것이 바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얼님에게 예배드리는 데 대해 가르침을 준 그대로이다.

“한얼님은 열이시다. 그러므로 한얼님에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는 열나로 참되게 한얼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요한 4:24, 박영호 의역)



왼쪽부터 성천 류달영, 함석헌, 다석 류영모

예수, 석가, 류영모가 말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송상호 목사는 간소한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였다.

“종교의 번영을 추구하고 종교 정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식의 종교는 간소한 게 아니다. 종교가 권위적이며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간소한 게 아니다. 소속된 종교인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종교는 간소한 게 아니다. 교리(Dogma)를 만들고 경전을 만드는데 전력하는 것은 간소한 게 아니다. 자신의 종교를 최고라 여기고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종교는 간소한 게 아니다. 교조(敎祖)를 섬기고 절대화하는 것은 간소한 게 아니다. 조직을 만들어 조직에 대한 충성이 곧 종교에 대한 충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간소한 게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규정하여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는 종교는 간소한 게 아니다. 간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의 외형적인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를 말한다. '종교의

궁극적인 기도는 종교 자체가 없어져도 인간의 삶이 얼 생명의 깊이와 통일 연합되어 얼 생명의 충만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라야 한다.『폴 틸리히의 생애와 사상』은 폴 틸리히의 말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사망만 다한다면 스스로 없어져도 좋다고 하는 종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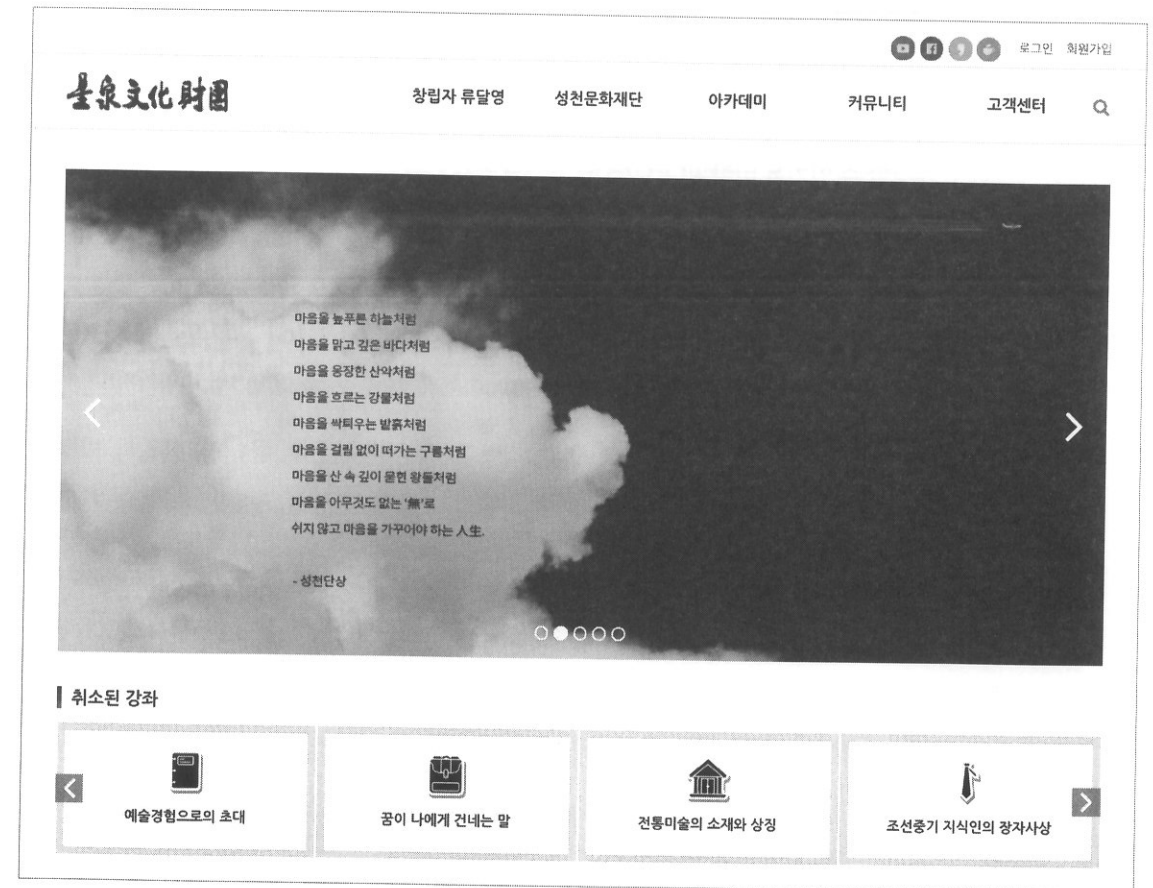
(송상호, 『모든 종교는 구라다』)

송상호 목사가 지적인 간소한 종교가 얼마나 깨달은 예수, 석가와 같은 영성 신앙이라면, 복잡한 종교는 얼마나 깨닫지 못한 제나의 기복 종교이다. 대형 교회나 사찰을 이룬 사제들이 스스로는 성공한 사람이라지만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세상에 나서 잡자리조차 없고 밥 빌어먹어야 할 처지라면 실패한 인생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영생인 얼 삶으로 예수, 석가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산 이는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고백할 말이 있다. 예수, 석가 두 분은 생각만 하여도 머리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더워진다. 웅장한 사찰이나 성당이 무엇이란 말인가?

“얼나가 곧 길(道)이요 참(眞)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얼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얼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다. 너희가 얼나를 알았다면 한얼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요한 14:6~7)

## 성천 문화재단 소식



### ● 성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새 단장

성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20여 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류달영 선생과 성천문화재단의 발자취, 30여 년간 이어온 성천아카데미의 강좌목록과 강의자료, 계간지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추계강좌부터 성천아카데미의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하시길 권합니다.

